

기리야마 가사네(桐山襲)론*

- 기리야마문학 속의 한국과 오키나와 -

소명선**
smskk0604@jejunu.ac.kr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4. '제3세계'로서의 한국과 오키나와 |
| 2. 과거사에 대한 태도—《지원한 창부》의식 | 5. 나오며 |
| 3. 원초적 세계 속의 평화적 공존 | |

主題語: 전공투세대(Zenkyoto Generation), 한국(Korea), 오키나와(Okinawa), 남도(Nanto), 제3세계(The 3rd world)

1. 들어가며

‘빨치산전설’사건의 주인공 기리야마 가사네(桐山襲)는 1992년 사망 후 20여년이 지난 현재 문단에서는 잊혀진 이름이 되었다. ‘빨치산전설’사건이란 1983년 10월호 「문예(文藝)」지에 게재된 기리야마의 『빨치산전설(パルチザン伝説)』에 대해 「주간신조(週刊新潮)」가 천황암살을 다룬 소설로 광고함으로써 우익집단의 출판 저지 압력을 받은 사건이다. 『빨치산전설』은 1974년 미쓰비시(三菱)중공업 폭파사건을 시작으로 이듬해 5월까지 연속적으로 기업 폭탄테러를 일으킨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東アジア反日武装戦線)의 활동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특히 소설에서 문제가 된 것은 1974년 8월 14일 쇼와천황이 탄 열차를 철교와 함께 폭파시키려다 실패로 끝난 ‘무지개작전(虹作戦)’이다. 매스미디어의 횡포가 초래한 필화사건 이후 작자인 기리야마의 신상에 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¹⁾ 그러던 중 기리야마가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제주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부교수

1) 고야마 데쓰로(小山鉄郎)는 기리야마에 대한 애도문(「文学者追跡—“覆面作家”桐山襲の死」, 「文学界」1992.06)에서 기리야마를 “복면작가”로 표현하고 있다. 이 글에서 고야마는 기리야마의 짧은 작가 인생에 대한 소개 외에 부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리야마가 『빨치산전설』의 작가라는 사실을 부인을 제외한 가족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작품세계가 주는 이미지와는 달리 부인과 딸에 대한

1992년 42살의 나이에 사망하자 유고집 『미장의 때(未葬の時)』(作品社, 1994.06)가 간행되었고, 5년 후에 고단사(講談社)에서 문고판으로 재출판될 때 작자 연보와 사진이 실리면서 비로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었다.

후루야 가즈오(古屋和男)라는 본명의 1949년생 기리야마는 전형적인 베이비붐세대=단카이세대(団塊世代)이다. 그리고 그가 와세다대학(早稲田大学)문학부에 입학한 것은 ‘68년 혁명’이란 용어로 상징되는 세계적인 혁명의 시대인 1968년이다. 일본에서는 1966년을 전후하여 학비 인상 반대 시위를 발단으로 와세다대학을 비롯한 몇몇 대학에서 이미 전공투(全学共闘会議)의 형태를 띤 조직이 형성되었고, 1968년에는 도쿄(東京)대학과 니혼(日本)대학을 비롯해 전국 대학에서 전공투가 결성되어 60년대 말 학원투쟁의 중심이 된다. 현대일본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가 와세다대학 문학부에 입학하는 해도 1968년으로 기리야마와 하루키는 동일한 시기를 동일대학 캠퍼스에서 보낸 전형적인 전공투세대 작가이다. 대학입학 후 곧 학원투쟁에 참가한 기리야마가 대학을 졸업하는 것은 1972년 3월로 연합적군에 의한 아사마산장사건(浅間山荘事件)이 발생한 직후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기리야마의 대학생활은 그야말로 전공투운동이 최고조에 이른 시기에 해당된다.

1983년 『빨치산전설』로 데뷔하여 8년 남짓한 작가생활 동안 기리야마는 총17편의 소설을 남겼다. 그의 소설의 중심된 내용은 와세다대학에서의 투쟁,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 아사마산장사건과 같은 전공투체험과 광주민주화운동 등의 혁명과 투쟁으로 일관된 것이다. 그 속에서 기리야마는 전공투운동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와 의의를 묻기보다는 혁명을 꿈꾸며 죽어간 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소생과 미래의 혁명의 가능성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기리야마의 소설은 구로코 가즈오(黒古一夫)가 타 전공투세대의 문학과 비교하여 기리야마의 독자성을 “전공투운동을 <근대> 혹은 <현대>라는 시간=역사의 폭에서 보려고 하는”²⁾것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기리야마의 전공투체험 소설은 전공투운동 그 자체 혹은 체험 그 자체를 표현하려는 것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기리야마의 시점은 전공투시대에 한정하

기리야마의 세심한 배려와 애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2) 黒古一夫(1985.09)『全共闘文学論 祝祭と修羅』彩流社 p.117

참고로 기리야마의 문단에서의 평가와 위치를 살펴보면, 우익의 출판저지사건으로 화제가 된 데뷔작 『빨치산전설』, 그리고 1984년도 상반기와 하반기 아쿠타가와상 후보에 오른 『스타바트 마텔(スターバト・マーテル)』과 『바람의 연대기(風のクロニクル)』에 대해서는 작품에 대한 평이 발견되지만, 전반적으로 기리야마는 무명의 작가처럼 문단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했다. 『群像』지의 창작합평을 보아도 역사 혹은 현실 파악에서 평범한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고, 감상주의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식의 평가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기리야마에 대한 언급이 가장 빈번히 이루어지는 것은, 이소다 고이치(磯田光一)의 『左翼がサヨクになるとき—ある時代の精神史』(集英社, 1986.11)등과 같이 전전과 전후 좌익사상의 변화 과정에서 ‘가짜 ‘좌익’’, 가타가나로서 표기되는 ‘좌익(サヨク)’사상으로서 논의되는 장에서이다.

지 않고, 근대라는 것의 총체적인 부정이라는 시각에서 근대와 현대를 교차시키면서 1980년대라는 현재적 상황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기리야마의 작품세계를 논의하는 본고에서 논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빨치산전설』에서 시작하여 다수의 작품이 오키나와(沖縄)를 무대로 하고 있거나, 오키나와출신의 인물이 등장하거나, 오키나와적인 요소가 삽입되어 있거나 하는 식으로 오키나와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키나와를 표상하는 작품에는 주변적인 요소로 ‘조선인’과 한국의 상황이 점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기리야마는 한국을 무대로 한, 한국인 화자에 의한 작품을 발표할 정도로 한반도의 상황에 깊은 관심을 보인 작가이다. 논자는 한국을 무대로 한 두 작품 「유랑곡예사(旅芸人)」(『文藝』1985.04)와 「리틀 백(リトル・ペク)」(『民謡』6号 1989.02)을 중심으로 기리야마의 한반도의 민중상과 한반도에 대한 시선에 대해 고찰한 바 있고, 『아열대의 눈물(亜熱帯の涙)』(『文藝』1987.春)에 그려진 신화적 세계에 대해서는 포스트 모던적 상황에서의 ‘남도’신화의 의미에 관해 고찰한 바가 있다.³⁾ 이러한 논고를 토대로 본고에서는 기리야마가 한국과 오키나와를 바라보는 시각에 초점을 맞추어 각각의 문학적 표상이 지닌 특징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과 오키나와에 대한 픽션화 과정에 주목하여 기리야마에게 있어 한국과 오키나와가 제시해주는 문학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당시의 언설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은 급격한 경제성장을 거쳐 고도소비사회를 맞이한 1980년대에 전공투 체험을 가진 세대의 일본사회 및 역사에 대한 인식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2. 과거사에 대한 태도—《지원한 창부》 의식

동아시아반일본무장전선 ‘늑대’ 그룹의 활동을 소재로 한 『빨치산전설』의 화자는 <M기업> 폭파사건 이후 그룹에서 이탈하여 혼자서 폭탄을 제작하는 과정에 폭발사고로 한 쪽 눈과 한 쪽 팔을 잃은 자칭 《쇼와의 단계사젠(昭和の丹下左膳)⁴⁾》이다. 소설은 화자인 ‘나’가

3) 졸론「기리야마 가사네(桐山龔)론—마이너리티문학과 한반도에 대한 시선」(『日語日文学』37집 2008.02)과 「기리야마 가사네(桐山龔)의 『아열대의 눈물(亜熱帯の涙)』론—南島神話의 1980년대적 의미」(『日本語文学』38집 2008.09)에서 각각 고찰하고 있으며, 이 외에 『바람의 연대기(風のクロニクル)』를 중심으로 전공투세대작가로서 기리야마의 문학적 특징에 대해 고찰한 「桐山龔『風のクロニクル』論—全共闘世代の文学を読む」(『日本語文学』32輯 2007.03) 등이 있다.

4) 소설가 하세가와 가이타로(長谷川海太郎)의 신문연재소설『丹下左膳』의 주인공 이름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하세가와가 하야시 후보(林不忘)라는 필명으로 「毎日新聞」(1933.06~11)과 「読売新聞」(1934.01~09)

오키나와의 작은 섬에서 1951년 가을, 구두 한 켤레만 남겨놓고 사라진 아버지에 관해 형에게 보내는 두 통의 편지 형식으로 이루어져있다. 두 살 위인 형은 1969년 가을, 사토(佐藤)수상의 미국방문 저지 투쟁을 목전에 둔 시위에서 체포되어 2년 남짓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1972년에 출소하지만, 출소 전에 발생한 아사마산장사건에 대한 충격으로 현재는 《결의한 병어리(決意した睡者)》가 되어 ‘아시아의 동쪽 최악의 나라의 수도’⁵⁾에 살고 있다. ‘나’는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 ‘나’에게 건네준 ‘S씨의 수기’를 통해 아버지의 정체와 형과 자신이 하고자 한 일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형에게 전하기 위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의 세대에서 자신의 세대로 이어진, 역사의 어둠 속에 묻혀버리고 말 ‘그 일(あのこと)’에 관한 기록이다. ‘그 일’은 ‘나’가 속했던 그룹이 1974년 8월 14일에 감행하려다 실패한 ‘무지개작전’으로 천황이 탄 열차를 폭파시키려던 계획이고, 아버지가 1945년 8월 14일에 단독으로 감행하려 했던 천황 암살 시도이다.

‘나’는 ‘S씨의 수기’를 통해 일찍이 신문기자이자 빨치산이었던 호즈미 잇사쿠(穂積一作)가 1945년 8월 14일의 고독한 투쟁에서 한 쪽 눈과 한 쪽 팔을 잃고 결코 입을 열지 않는 병어리가 되어 오이 히지리(大井聖)란 이름으로 살아온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나 아버지가 사망(혹은 실종)하는 시기가 1951년 가을인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러면서 ‘나’는 “한반도를 불태우는 전쟁 속에서 일본이 패전국에서 아시아 유일의 공업국으로의 “부흥” 기반을 다져”갔고, “전후의 ‘혁명적 정세’가 최종적으로 청산되어간”⁶⁾ 1951년의 상황에 대한 절망이 아버지를 실종 혹은 자살로 이끈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이것은 일본경제의 부흥=아시아에 대한 침략이라는 시각으로, 여기에는 아시아 침략이라는 일본의 제국주의역사와 이를 발판으로 고도경제성장을 이룬 일본사회의 근대적 시스템에 대한 기리야마의 비판적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⁷⁾

일본의 제국주의역사에 대한 기리야마의 시각은 ‘나’의 여동생의 독특한 설정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1954년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채 태어난 여동생은 어머니가 사망하자 곧 자취를 감추었는데, 현재는 한국의 <광(光)>이라는 이름의 도시, 즉 광주에서 일본인 상대의 창부가 되어 있다. 「유랑곡예사」에 쌍둥이자매 가수를 화폐의 힘으로 매춘하는 일본인의 모습을 “일본의 짧은 머리의 남자들은 반도의 여자 앞에 긴 행렬을 이룬다는 옛날부터의

에 연재한 『丹下左膳』의 주인공 단계사젠이 에도시대에 활약한 외눈, 외팔이의 검사(劍士)로 설정된 것에 대하여 자신을 《쇼와의 단계사젠》에 비유하고 있다.

5) 桐山襲(1983.10)「バルチザン伝説」『文藝』, p.49

6) 桐山襲(1983.10)「バルチザン伝説」『文藝』, p.126

7) 소명선(2008)「기리야마 가사네(桐山襲)론—마이너리티문학과 한반도에 대한 시선」『日語日文学』37집, p.213

습성을, 아직 잃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⁸⁾라고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것과 연관시켜 볼 때, ‘나’의 여동생=《지원한 창부(志願した娼婦)》는 일본군에게 유린당한 중군위안부 여성에 대한 의식과, 침략의 역사를 망각한 채 급성장한 경제력으로 한국으로의 매춘여행을 즐기는 일본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버지 세대에서 자식 세대로 이어지는 일본국에 대한 불복종과 반역의 역사를 ‘나’는 “1970년대의 유일한 정사(正史)⁹⁾”로서 쓰고 있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시각은 『도시서경단장(都市叙景断章)』(『文藝』1989.春)이란 작품에도 나타나고 있다. 화자인 ‘나’가 기억을 잃어가는 병에 걸린 것은 10년 전의 일로 1980년 현재, “옷을 입은 단순한 공허” 그 자체로 기억이 없는 도시에서 빌딩 유리창을 닦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결락된 것은 자기 자신에 관련된 사항들뿐으로 과거에 학습한 내용은 기억하는 기묘한 병이다. 그러던 어느 날 음식점의 TV화면을 통해 한 여성을 보게 된 ‘나’는 마히루코(真屋子)라는 이름을 떠올린다. 이후 ‘나’에게는 4개의 단편적인 기억이 서서히 되살아나기 시작한다. 첫 번째 기억은 최루가스가 자욱한 J역 광장에서 ‘나’의 팔을 붙잡고 도망치는 그녀의 모습으로 이것은 1968년 10월 21일 ‘국제반전의 날(国際反戦デー)’ 시위에 참가한 기억이다. 두 번째 기억은 1969년 9월 5일 H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전국전공투연합결성집회가 열리던 날 콘크리트 단상을 채우고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붉은 헬멧을 쓰고 코카콜라병을 들고 있는 그녀를 본 기억이다. 세 번째는 눈 덮인 겨울산에서의 기억으로, 산악지대에 기지를 건설하는 일을 돕기 위해 투입된 ‘나’가 그곳에서 그녀를 만난다. 네 번째 기억은 12명의 얼굴 사진이 실린 신문이 펼쳐져 있고, 몇 번이고 구토를 반복한 ‘나’가 마히루코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이다. 이것은 1972년 2월 19일부터 열흘간에 걸쳐 연합적군에 의한 아사마산장 인질사건과 그 후 발각된 집단내의 살인사건에 대한 기억이다. 결국 이러한 네 가지 기억들 속에서 마히루코라는 이름은 ‘나’의 전공투운동에 대한 기억을 환기시키는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TV화면 속의 여성이 마히루코인지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나’는 공백상태였던 기억이 그녀로 인해 떠올리게 된 몇 개의 파편을 기록한 노트를 그녀가 있는 남도의 R촌으로 보낼 생각을 한다. 그리고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아래와 같이 서술한다.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 계속 써 온 이 도시와 관련된 서경의 단장은 간단히 버려진다. 그리고 그 대신 우리들은 서사시를, 1968년의 가두에서 시작되어 1972년 산악에서 끝나는 우리를 시대의 서사시를, 이 도시 속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포석과 꿈과 밤에 대해 우리들은

8) 桐山龔(1985.04)「旅芸人」『文藝』, p.45

9) 桐山龔(1983.10)「パルチザン伝説」『文藝』, p.55

이야기한다. 12개의 눈구덩이와 12명의 죽은 자에 대해 우리들은 이야기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을 때 나는 그 10월의 밤에 키가 큰 선동자가 말한 것처럼 <그들의 방침은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함께 싸우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확인하자>고 말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녀도 또한 저 산악지대의 별이 총총한 밤에 나에게 한 것과 같은 말을, 다시 한 번 되풀이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변혁……> 20년이라는 세월 뒤에 우리들은 마침내 그 시대에 관한 말을 회복시킨다……¹⁰⁾

이 소설은 연합적군사건을 제재로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그의 주된 관심은 인질사건을 벌인 5명이 아니라, 즉 “그들의 방침”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 살해된 죽은 자들을 향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 속에는 “<그들의 방침은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함께 싸우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확인하자>”라는 메시지만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리야마의 소설에서는 세계적인 혁명의 시대인 1968년부터 아사마산장사건으로 막을 내린 1972년까지 전개된 전공투운동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로 인해 기리야마의 소설은 “현실과의 접촉이 아무것도 없는 문장”¹¹⁾으로 1960년대의 다카하시 가즈미(高橋和巳)의 소설을 로맨틱하게 변형시킨 것이며, 인간에 대한 궁극적인 탐구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 “일종의 감상적인 노스텔지어”¹²⁾에 지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주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마루히코라는 여성의 설정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루히코는 기억을 잃고 빈껍데기처럼 살아가는 ‘나’에게 파편적인 기억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들 시대의 서사시”를 이야기하고, 혁명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해준 존재이다. 여기에서 ‘나’가 처음으로 마히루코라는 이름을 떠올린 계기가 ‘오키나와전쟁 특집’이란 제목으로 ‘조선인’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다큐멘터리 방송이었다는 점과 마히루코가 계절이 바뀔 때면 훌쩍 어디론가 걸어서 돌아다니는, 이미 분별력을 잃은 듯한 ‘조선인’ 노파를 돕는 봉사자로서 화면에 비쳤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자. 어둠과는 거리가 먼 한낮의 밝음이 이미지화된 마루히코는 왜 오키나와에 있고, 왜 ‘조선인’ 여성과 함께 있는 것이며, 그 ‘조선인’ 여성은 과연 누구인가.

오키나와에 거주하던 충남 예산 출신의 여성이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중군위안부였던 자신의 과거를 밝혀 화제가 된 일이 있었다. 1975년 10월 22일자 「오키나와타임즈(沖縄タイムズ)」는 부산을 거쳐 오키나와로 연행되어 중군위안부를 강요당한 여성(배봉기, 당시 61세)이 1975년 10월 나하(那覇)출입국관리사무소의 배려로 특별체재허가를 받게 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

10) 桐山襲(1989.春)「都市叙景断章」, 『文藝』, pp.93-94

11) 川村二郎/三木卓柄谷行人(1989.03)「第59回創作合評」『群像』, p.382

12) 川村二郎/三木卓柄谷行人(1989.03)「第59回創作合評」『群像』, p.383

다. 이러한 ‘조선인’ 중군위안부의 등장은 오키나와인들의 역사인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오키나와전쟁에서 피해자 의식이 강했던 오키나와인들도 ‘조선인’ 군부와 위안부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재인식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다.¹³⁾ 이후 그녀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1977년 7월부터 1979년 5월에 걸쳐 야마다니 데쓰야(山谷哲夫)감독에 의해 기록영화 『오키나와의 할머니(沖縄のハルモニ)』가 제작되었다. 영화 완성 후 12월에는 영화내용을 보완하여 단행본으로 출판되었으며,¹⁴⁾ 1987년에는 가와다 후미코(川田文子)에 의해 페미니스트적 시각에서 중군위안부 여성의 삶을 밀착 취재한 프로르타주 『붉은 기와집—조선에서 온 중군위안부(赤瓦の家—朝鮮から来た従軍慰安婦)』(筑摩書房, 1987.02)가 간행되었다.

이렇게 볼 때 소설에서 ‘나’가 본 TV방송이 오키나와전쟁을 특집한 방송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마루히코와 함께 있었던 ‘조선인’ 여성은 중군위안부 출신의 여성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소설 속에서 ‘조선인’ 여성은 패전 후 오키나와 각지를 떠돌며 살았고, 61세 당시 만성두통에 시달리며 사람들의 눈을 피해 외딴 오두막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던 배봉기씨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기리야마는 그의 소설 속에서 경제력으로 한국 여성을 매춘하려는 일본 남성에게 대해 한국 여성을 대신해 자진해서 그들 상대의 창부가 된 일본 여성, 혹은 일본군의 성노예생활을 강제당한 중군위안부 여성을 돕는 자원봉사자들로 일하는 일본 여성을 그려내고 있다. 『도시서경단장』의 마루히코는 『빨치산전설』의 ‘나’의 여동생과 동일한 지평에서 논의될 수 있으며, 이들 소설에 나타난 기리야마의 제국주의역사에 대한 태도는 일본정부가 부정하고 은폐하려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속죄의 의미를 담은 《지원한 창부》 의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13) 오키나와에서는 1947년 8월과 1972년 8월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오키나와 조선인강제연행학살 진상조사단’에 의해 그 실태파악이 이루어졌지만, 정확한 인원수는 파악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를 통해 오키나와전쟁사 기록에 있어서는 ‘조선’에서 강제연행된 군부와 위안부에 대한 기술이 결여되어 있었음을 인정하고, 『沖縄県史第10巻 沖縄戦記録2』(沖縄県教育委員会沖縄史料編集所, 1974.03)에서는 ‘조선인’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어 있다. 따라서 1975년 중군위안부 여성 배봉기씨의 증언 자체가 오키나와인들의 역사인식 전환의 첫 계기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오키나와전쟁에 강제연행된 한국인의 증언은 배봉기씨의 경우가 처음이었던 만큼 ‘조선인’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어 있었던 오키나와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음은 틀림없다. 그리고 1991년 8월 14일 한국에서 김학순씨가 최초로 중군위안부 피해자 신고를 하게 되면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일본정부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죄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면서 일본 내에서도 1990년대부터 중군위안부에 관한 다양한 언설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배봉기씨의 증언은 일본에서 중군위안부에 관한 언설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4) 일본제국의 군대가 관리매춘을 해 온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대일본매춘사’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는 단행본 『오키나와의 할머니—대일본매춘사(沖縄のハルモニ—大日本売春史)』(晩聲社, 1979.12)에서 배봉기씨는 박씨라는 가명이 사용되어지고 있고, 여기에는 배봉기씨의 증언 외에 오키나와인들의 증언과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3. 원초적 세계 속의 평화적 공존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전공투운동을 테마로 한 기리야마의 대부분의 소설은 오키나와와 관련된 내용을 내포하고 있고, 또 거기에는 한국에 대한 의식을 동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빨치산전설』의 경우 화자가 형에게 편지를 보내는 발신지가 오키나와였다. ‘나’는 “1972년의 일본국에 의한 류큐제도 합병”에 의해 “급속하게 침투해 오는 상품의 홍수와 공동체의 해체”¹⁵⁾ 속에 우타키(御嶽)와 노로(ノロ)와 같은 전통신앙의 위엄은 사라지고, 유타(ユタ)라 불리는 민간의 무녀들이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그 세력을 계속 펼쳐가고 있”¹⁶⁾는 작은 섬에서 유타와 함께 살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빨치산전설』이 천황암살을 다룬 작품으로 오인되어 우익단체의 압박을 받게 되자 도쿄를 떠나 도피생활을 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망명지에서 1983년 가을(亡命地にて 1983年・秋)」(『早稲田文学』1984.01)에서 화자인 ‘나’가 도피처로 선택한 곳은 오키나와였다. 뿐만 아니라 『바람의 연대기(風のクロニクル)』(『文藝』1984.11)에서는 화자인 ‘나’가 N에게 보내는 5통의 편지 속에 삽입된 희곡에서 다치바나(橋)라는 여학생이 오키나와출신으로 설정되어 있다.

「망명지에서 1983년 가을」의 ‘나’는 1970년 여름, 신분증명서와 미군정부가 발행하는 체재허가증을 소지하고 오키나와로 향했던 10여 년 전을 떠올리며 현재의 상황을 ‘망명’이라는 단어와 겹쳐본다. 나하(那覇)항에 내린 ‘나’는 베트남으로 향하는 군수물자 수송으로 북적였던 옛 군용도로, 고자폭동(コザ暴動)이 있었던 사거리, 오키나와인 전용 매춘거리를 돌아본다. ‘북방영토반환’이라고 쓴 전단지가 오키나와의 거리에도 붙은 광경을 보면서 ‘나’는 일본으로의 ‘합병’ 이후 변화된 오키나와를 실감하고 가을 기운과 함께 오키나와에서의 정착을 결의하는 것으로 소설은 끝이 난다. 그리고 언덕 위의 매춘거리에서 만나 열흘간을 함께 보낸 K코(K子)에 대한 에피소드는 3년 후에 발표되는 『성스러운 밤 성스러운 동굴(聖なる夜 聖なる穴)』(『文藝』1986.春)에서 새로운 픽션으로 탄생한다.

본 장에서는 오키나와를 무대로 한 두 작품 『성스러운 밤 성스러운 동굴』과 『아열대의 눈물(亜熱帯の涙)』(『文藝』1987.春)을 중심으로 기리야마의 소설에서 오키나와는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오키나와 형상화 과정에 나타나는 한국에 대한 시각은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성스러운 밤 성스러운 동굴』의 프롤로그는 이 소설을 오키나와의 군중이 미군과 대치한 고자폭동(コザ暴動)이 발생한 1970년 12월 20일 새벽에 펼쳐지는 ‘하나의 사랑

15) 桐山襲(1983.10)『バルチザン伝説』『文藝』, p.122

16) 桐山襲(1983.10)『バルチザン伝説』『文藝』, p.123

이야기'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작품은 오키나와를 무대로 한 현재의 이야기와 미래의 이야기가 서로 교차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재적 시점의 스토리는 고자폭동이 발생한 밤의 '사랑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1975년 7월 17일 이토만시(糸満市)에서 발생할 사건, 즉 히메유리탑(ひめゆりの塔)사건을 준비하는 청년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시점은 본토남자와 오키나와여자에 대한 3인칭 시점과 근대오키나와를 대표하는 사회운동가 자하나 노보루(謝花昇: 1865~1908)와 현대를 살아가는 동명이인의 청년, 즉 쇼와(昭和)의 자하나와 메이지(明治)의 자하나의 각각 1인칭 시점이 혼용되는 서술구조를 취하고 있다.

30살의 본토남자와 19살의 오키나와여자의 '사랑이야기'는 남녀의 대화 내용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는 서로의 세계에 대한 이해 혹은 감정의 교차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구애를 하고 있는 본토남자의 모습은 오키나와에 대한 본토의 모습을 상기시킨다. 특히 리조트 건설 관련 일을 하는 본토남자가 출장지에서 만난 오키나와여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는 일본으로의 '합병' 이후 오키나와를 바라보는 본토인의 시선이 잘 나타나고 있다. 본토남자는 오키나와를 오로지 새로운 자본시장, 상품가치로서만 보고 있고, 오키나와여자를 자신만의 소유물로 만들기 위해 “가난한 섬의, 가난한 언덕 위의 도시”¹⁷⁾에서 도쿄로 데리고 가겠다고 한다. 가정이 있는 자로서 경제적으로도 실현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오키나와여자 앞에서 꿈같은 이야기를 펼쳐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여자의 빛을 대신 갇아주고 도쿄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남자의 이야기는 여자에게 아무런 관심도 감동도 끌어내지 못한다. 이 이야기는 본토남자와 오키나와여자의 '사랑이야기'가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 들려주는 자신의 '사랑이야기', 즉 치아가 모두 빠진 한 남자와의 운명적인 만남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다.¹⁸⁾

한편, 이러한 '하나의 사랑이야기'와 함께 전개되는 것이 '나'=자하나와 메이지의 자하나의 이야기이다. 1865년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자하나가 제1회 현비(縣費)유학생으로 선출되어 18살에 본토로 향한 것처럼, 동일한 이름을 가진 '나'=자하나도 1968년 대학 진학을 위해 18살에 본토로 향한다. 이 또 하나의 이야기는 두 자하나가 번갈아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각각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서술 내용을 이어받고 있다. 이것은 메이지의 자하나(죽은 자)의 삶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과의 연결고리를 찾고자 하는 쇼와의 자하나의 의지의 표출이다.

17) 桐山龔(1986 春)「聖なる夜聖なる穴」『文藝』, p.108

18) 앞서 이 소설은 '하나의 사랑이야기'와 자하나의 이야기로 서로 다른 이야기가 전개된다고 했다. 실제 형식과 내용면에서 독립적인 형태를 띠고 있지만, 두 이야기는 언덕 위의 도시의 창부인 오키나와여자를 통해 유일한 접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오키나와여자가 치아가 없는 청년=쇼와의 자하나와의 만남을 본토남자에게 들려주는 과정에서 본토남자의 전공투운동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나타나기도 한다.

대학 진학과 동시에 전공투운동에 참여한 ‘나’는 입이 뭉개지고 치아가 모두 부러진 채로 본토에서 미군정부로 떠넘겨지듯 오키나와에 돌아와 있다. 그가 도쿄에서 본 것은 “하얗게 부풀어가는 한 개의 제국”, “대량의 피를 흡입하고 무수한 부(富)를 아로새긴 제국”의 모습이였다. 그리고 그 제국이 지금은 “바다를 건너 내가 태어난 작은 남쪽 섬을 삼키려 하”는 것이다.¹⁹⁾ ‘나’가 어두운 동굴 속에서 자신과 메이지의 자하나의 삶을 교차시키면서 ‘저주받은 이름’ 자하나에게서 계승하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

가쿠슈인(學習院)대학을 거쳐 도쿄농림학교를 졸업한 메이지의 자하나가 오키나와로 귀환한 것은 1891년으로, 농민출신의 제1호 학사로서 현(縣)의 농림행정을 담당하는 기사로 일하게 된다. 그가 오키나와 농림업의 근대화를 위해 추진한 다양한 사업 중, 쇼와의 자하나에게 비판의 표적이 된 것은 토지정리사업이다. 반발하는 농민들을 설득하여 추진한 이 사업은 결국 그때까지 공동관리 하에 놓여있었던 방대한 산림을 농민에게서 빼앗아 나라하라(奈良原) 현지사를 비롯하여 화족과 사족들의 소유로 넘겨버린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현지사의 폭정에 분노한 메이지의 자하나는 관직을 그만두고 그 후 오키나와클럽을 결성하여 민권운동을 시작하지만 그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나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 도쿄로 향하는 도중 발광하여 광기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만다. 죽기 전에 그가 보인 기이한 행동을 전기(傳記)작가는 고향 고친다(東風平)의 사거리에서 땅 위에 세 글자(현지사의 이름 奈良原)를 새기고,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밝게 했다고 전하는 내용을 메이지의 자하나는 부정한다. 그가 오키나와의 땅 위에 새긴 글자는 나라하라가 아니라 그가 현비유학생으로 입정한 이튿날 궁성에서 만난 불가침의 존재, 천황이라는 두 글자였다고 주장한다.

나의 육체가 땅의 동굴 속에 묻힐 때 나는 땅 속의 영혼이 되어 살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광기를 계승할 자가 나타날 것이다. 오키나와의 어두운 땅 속에서 첫 번째 적을 쓰러뜨리기 위해 나의 광기의 이름을 자칭하는 자들이 몇 명이고 몇 명이고 나타날 것이다……²⁰⁾

이러한 자하나의 광기와 ‘저주받은 이름’을 계승할 것을 자처하는 자가 ‘나’=쇼와의 자하나인 것이다.

너의 저주받은 이름은 지금 드디어 나의 것이 되었다. 75년 전의 너의 광기가 나의 몸속에서 분명 맥박이 뛰기 시작하고 있다. 미치광이가 된 너의 이름이 동굴 속에서 서서히 흥포한 모습을 갖추면서 바깥 세계로 나갈 때를 기다리고 있다. 75년간 땅 속에서 살아온 너의 영혼이, 지금,

19) 桐山龔(1986.春)「聖なる夜聖なる穴」『文藝』, p.84

20) 상계서, p.104

지상으로 나갈 최초의 자를 발견한 것이다. 나는 이제 곧 한 가지 일을 시작할 것이다. 자하나여, 너의 광기를 작은 등불처럼 나의 내부에 다 옮긴 지금, 불같은 격함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는 것은, 나의 전설, 너와 나의 광기가 만들어낼 전설이다! 21)

그리고 그는 1975년 7월 17일 오키나와를 방문한 황태자부처가 히메유리탐을 찾았을 때 동굴에 숨어있던 한 청년이 그들 앞에서 분신자살을 한 히메유리탐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쇼와의 자하나가 동굴에서 나와 불덩이가 되기 전, 동굴 속에서 자그마한 뿔조각을 발견하는 장면이 있다. 그리고 그 뿔조각을 통해 젊은 여성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그것은 1944년 취사부로 징용되어 잡다한 임무를 수행하지만 병사들의 욕정으로부터 히메유리학도 대를 지켜내기 위한 본연의 일을 명령받은 25살의 창부 출신의 여성의 목소리이다. 쇼와의 자하나는 진실을 전하기 위해 ‘성스러운 동굴’ 속에 계속 머무르는 여성의 뿔조각을 입에 물고 지상으로 나간다. 즉 메이지의 자하나의 광기와 의지를 계승할 것을 자처한 쇼와의 자하나는 구위안부여성의 뿔조각의 힘으로 지상에 나온 것이다. 이것을 쇼와의 자하나가 오키나와여자를 만난 날 밤부터 새로 이가 나기 시작했다는 기적을 서술하는 장면에서 “울창한 아열대의 여름밤에 안겨있는 언덕 위의 도시, 고대부터의 여자들이 살고 있는 성스러운 도시”²²⁾에서 <여동생>을 만났다고 회고하는 부분과 연관지어서 생각했을 때, 쇼와의 자하나에게 있어 오키나와는 성스러운 여성의 힘에 의해 치유받는 공간, 즉 ‘치유의 장’이라 표현할 수 있다.

기리아마의 오키나와에 대한 인식은 남방의 한 섬을 무대로 하나의 공동체가 탄생하고 멸망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 『아열대의 눈물』에서 그 형태가 명확해진다. 오랜 가뭄과 기근으로 마르지 않는 푸른 샘물이 있다는 전설의 섬, 그러나 일찍이 모든 인간이 절멸했다는 불길한 섬으로 향한 두 남녀 히가 가지라친(比嘉ガジラーチン)과 우파야(ウパーヤ)가 신화의 창생주이다. 가지라친이 30년에 걸쳐 해시계를 만들어 시간을 측정하고, 도로를 내고 제방을 쌓아 삶의 터전을 닦아놓자 그의 신체의 말단부가 점점 커져 거인화한다. 이즈음 가지라친과 우파야 두 사람만이 존재한 이 섬에도 점차 인구가 유입되어 백여 명에 이르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고, 새로운 생명도 태어나게 된다. 그러나 북방으로의 항로가 열리고 근대문명의 유입과 함께 ‘북방의 정부’로부터 지배세력이 파견되면서 평화로운 원시적 공동체는 파괴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북방 정부가 벌이는 전쟁의 여파로 군대가 파견되고 이들에 의해 마침내 섬 주민들이 전멸하고 만다.

21) 桐山龔(1986. 春) 「聖なる夜聖なる穴」 「文藝」, p.104

22) 상계서, p.97

이처럼 다양한 신화소를 내재하고 있는 『아열대의 눈물』은 근대화에 의해 상실한 자연과 공동성을 재획득하기 위한 시도로써 예를 들어 요시모토 다카아키(吉本隆明)의 공동체의 심층 분석과 아마구치 마사오(山口昌男)의 주변적인 문화의 심층 분석, 그리고 이들 공동체와 주변문화의 재활성화의 일환으로서의 축제, 나아가 축제로서의 혁명과 같은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에 일반화되는 구조론적 사고가 지배적인 작품이다.²³⁾ 이것은 고도소비사회에 돌입한 1980년대의 포스트모던적 상황에서 1960년대 말의 사상으로서의 회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기리야마에게 있어 문학의 근원적인 출발점이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에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한다. 상징성이 강한 기리야마의 아열대신화는, 상품만이 아니라 문학과 매스미디어가 유통시키는 정보를 통해 소비되어지는 1980년대적 상황에서 일본제국주의 역사를 상대화한다는 의미에서 시대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죽음과 창생을 반복하는 남방의 한 섬과 그 안에 형성된 공동체의 성격이다. 북방정부의 근대문명과 지배의 손길이 있기 전까지 가지라친과 우파야에 의해 형성된 공동체는 인종적 차별,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원시적이지만 평화로운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구성원 중 유일하게 국적이 명기된 것은 ‘조선인’이다. 가지라친과 우파야의 섬에 들어온 자들은 선주자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 가지라친과 동일한 성(姓)을 자처한다. 그 결과 섬은 히가란 이름이 급증하여 혼란을 초래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선조대대의 성을 계속 지키고 있는 조선인 세 가족²⁴⁾만은 ‘이’라는 성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성원들에게 있어 ‘조선인’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은 물론이고, 그들은 공동체 속에 ‘조선인’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아무런 의구심을 갖지 않는다. 오히려 이안식(イー・アンシク)이 연주하는 아코디언 소리에 몰입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들에게 있어 ‘조선인’이 마음의 안식과 로망을 안겨주는 특별한 존재로 위치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아시아 전역을 해방시키기 위한 군대²⁵⁾를 자처하며 상륙한 북방의 군대가 섬에서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적국의 스파이라는 명목으로 40명의 ‘조선인’을 모조리 감옥에 가두는 것이었다.²⁶⁾ 이것은 지배세력의 착취와 기근으로 피폐해진 섬에 “북방의 정부가 부녀자들

23) 소명선(2008) 「기리야마 가사네(桐山襲)의 『아열대의 눈물(亜熱帯の涙)』론—南島神話의 1980년대적 의미」 『日本語文学』 38집, p.126

24) 桐山襲(1987.春) 「亜熱帯の涙」 『文藝』, p.61

25) 상계서, p.128

26) 소설에서 북방의 군대는 ‘조선인’을 적국의 스파이로 몰아 모조리 독살시킨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오키나와전쟁 시 구메지마(久米島)에서 실제 발생한 일본군 수비대에 의한 민간인 학살사건인 ‘구메지마사건’의 일면을 상기시키는 장면이다. 일본군은 민간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외면한 것은 물론이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민간인을 스파이 혐의로 학살했으며, 그 속에는 오키나와인뿐 아니

모집하고 있다. 기간은 2년이고, 일은 간단! 단, 15세에서 40세까지의 건강한 여자에 한한다! 응모한 여자에게는 충분한 식량이 주어진다.”²⁷⁾는 포고가 붙어 기혼과 미혼을 불문하고 섬의 수많은 여자들이 배에 실려 간 후의 일이다. 15세에서 40세 사이의 여성 100명(물론 여기에는 ‘조선인’여성도 포함)이 빠져나간 후 체포된 ‘조선인’ 전 인원이 40명이라는 사실에서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인구의 상당수가 ‘조선인’인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우파야가 50살에 임신을 하고 산달을 훨씬 넘겨 22개월 만에 낳은 아들 가쥬라르가 쥬라르(ガジュラル・ガジュラル)가 ‘빛나는 길(輝ける道)’이란 혁명군을 결성했을 때 모 여든 젊은이 중에서 3명이 ‘조선인’이었다. 7명으로 구성된 혁명군은 섬의 어린이를 앞잡이로 내세운 군대의 추격으로 5명이 사망하고 가쥬라르가쥬라르와 그의 연인 유나(ユナ)만 남게 된다. 그들은 독살당한 40명의 ‘조선인’이 화장되는 날 피신해 있는 동굴 속에서 ‘아이고’라는 통곡소리를 듣는다. 이것을 화자는 전투에서 사망한 ‘조선인’ 젊은이와 이안식의 목소리가 “천 명의 조선인이 외치고 있는 듯한 큰 울림”²⁸⁾이 되어 새벽까지 계속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가쥬라르가쥬라르와 유나는 죽은 ‘조선인’들의 울부짖는 목소리에 이끌리듯 동굴에서 나와 다시금 전투를 개시할 결심을 한다.

소설 속에서 북방의 정부=일본제국에 의해 파괴되는 평화로운 원시공동체의 운명은 오키나와의 근현대사와 겹쳐지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결국 사람들은 전멸하고 다시금 시간의 흐름이 멈춘 무인도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이 소설의 무대가 오키나와를 상징한 허구의 공간이라는 사실은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리야마가 구축해낸 공간의 특징은 공동체의 구성원에 ‘조선인’을 추가시켜 원초적인 세계 속에 오키나와인과 ‘조선인’이 공존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고, 그 공간 안에는 차별과 배제, 지배와 억압의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제3세계’로서의 한국과 오키나와

기리야마는 1987년 8월 「계간크라이시스(季刊クライシス)」(31호)의 「천황을 거부하는 오키나와(天皇を拒否する沖縄)」라는 제목의 특집호에 「남도의 죽은 자와 산 자(南島の死者と生者)」라는 에세이를 발표하고 있다. 여기서 기리야마는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国男)의 『매장제

라 조선인 일가족도 포함되어 있었다.

27) 桐山襲(1987.春) 「亜熱帯の涙」『文藝』, p.122

28) 상계서, p.144

도의 연혁에 대해(葬制の沿革について)』(岡山民俗学会, 1955.12)라는 저서를 인용하면서 ‘남도’의 매장법에 대한 매력을 피력하고 있다. 기리야마의 관심은 오키나와를 비롯한 ‘남도’ 대부분 지역에서 널리 행해졌다는 풍장(風葬)에 있다. 본토에서 주로 행해진 양묘제(兩墓制)의 경우, 죽은 자가 ‘불결한 육체’와 ‘존엄한 영혼’으로 분리되어 두 종류의 무덤이 존재하지만, ‘남도’에서는 “죽은 자는 죽은 자인 채로 백골화되어, 조용히 육체를 벗어던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양묘제라기보다 ‘복장제(複葬制)’라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⁹⁾ “복장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육체를 가진 자로서의 죽은 자에 대한 애모일 것이다. 여기서는 죽은 자는 산 자에게 지켜봐지면서—즉 산 자의 인생과 같은 만큼의 시간을 들이면서—천천히 백골이 되어간다.”³⁰⁾라고 하는 문장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기리야마는 풍장을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있는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죽은 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기리야마의 문학적 태도와 잘 부합된다.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있는 시간>이 지금도 역시 남도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 흐르고 있다고 한다면 죽은 자의 중얼거림은 어떠한 말이 되어 동굴 벽에 메아리치고 산 자의 귀에 도달하는 것일까. 산 자는 죽은 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 말을 어떻게 자신의 입으로 읊기는 것일까. ³¹⁾

그런데 이러한 ‘남도’에 대한 인식은 기리야마가 제주도를 표상하는 작품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제주도 출신의 유랑극단 단장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 「유랑곡예사」에서 기리야마는 제주도를 풍장의 섬으로 허구화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7일간 동굴 속에 방치했다가 매장한다는 독특한 풍장의 관례를 가진 섬으로 서술함으로써 제주도를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하는 공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풍장이라는 관습으로 ‘남도’와 제주도는 동일지평에 놓이게 되며, 이러한 설정에서 과거의 ‘혁명’의 역사에 대한 기리야마의 독특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단장에게 민주혁명의 역사적인 1960년 4월 19일에 쌍둥이 아들이 태어난다. 그러나 한 명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강에 빠져 익사하는 사고를 당해, 단장은 섬의 관습에 따라 죽은 아들을 산기슭의 동굴 속에 둔다.

실패와 좌절로서 끝난 혁명, 혹은 혁명의 희생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준비하는 과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풍장의 섬으로 만든 제주도를 이번에는 “돌과 여자와 쌍둥이가 많은 섬”³²⁾으로 변형시키고 있다. 실제 소설 속에서는 단장의 아들뿐 아니라 단장이 입양한 자매와

29) 桐山襲(1987)「南島の死者と生者」『季刊クライシス』31号, p.85

30) 상계서, p.85

31) 상계서, p.86

한라산의 무장봉기대의 지도자가 쌍둥이로 설정되어 있다. 무사히 성장하여 K시에 소재한 대학에서 역사철학을 공부하는 쌍둥이 아들은 1980년 5월 18일 광주의 민주화운동 현장에서 사라진다. 단장은 동향 출신의 경찰서장이 “죽은 짐은 물고기 같기도 하고, 천공의 끝에서 낙하해 온 기묘한 생물의 화석” 같기도 한 아들의 남근을 내보였지만, 아들의 죽음을 믿을 수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들의 죽음을 둘러싼 정보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압군이 광주 거리를 제압한 후 2천명의 동지들과 함께 총을 들고 깊은 산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와 엄청난 수의 시체를 속에 파묻혀 군 트럭에 실려 갔다는 서로 다른 증언을 들은 단장은 아래와 같은 생각을 한다.

한쪽은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고, 또 한쪽은 아들이 죽어버렸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완전히 모순되어 있다. 그러나 두 정보를 함께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서로 전후하여 일어난 두 개의 진실인 것처럼도 생각되어졌다. 즉—총을 들고 깊은 산에 들어간 2천명의 자들이 마침내 군대에 의해 전멸되어 트럭에 실려 갔다—혹은 일단은 시체가 되어 거리 밖으로 실려 간 아들이 거기에서 되살아나 2천명의 자들과 함께 산으로 들어갔다. 그것도—태어나 석 달 되던 때 강에 빠져 죽은 아들이, 동굴의 어둠에 보호받으며 살아남아 자신의 형제가 총살당한 후에 새로운 무기를 손에 들고 산으로 들어갔다?.....³²⁾

이와 같은 해석은 5.18광주민주화운동뿐 아니라 제주도 4.3사건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다.

일찍이 내전이 시작되기 전 제주도 한라산에 숨은 빨치산의 유명한 지도자인 쌍둥이 형제도 또한 남쪽의 작은 섬에서 흘러들어 온 버려진 아이라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보면 그 빨치산의 형제는 불사신이였다. 당시 정부는 형제 둘 다 살해했다고 발표했지만, 마침내 소문이—죽은 것은 형뿐이고 동생은 지금도 빨치산을 이끌고 한라산 깊은 곳에 숨어있다는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퍼졌다. 정부는 그 소문을 없애기 위해 몇 번인가 산을 수색한 결과 마침내 동생도 살해했다고 공표했으나 이번에는 형이 살아남아 산악지대에서 전투를 계속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³⁴⁾

여기서 기리아마는 상기의 사건들에 대해 단락적인 의미 부여를 피하고 있다. 그의 관심은 이미 규정된 역사적 의미보다 혁명과 투쟁을 위해 죽어간 자들에 대한 상기와 전승에 있다. 단장은 쌍둥이는 두 개의 영혼을 가지고 태어난 것으로 이들은 각각 현재와 내세를 동시에

32) 桐山龔(1985.04)「旅芸人」『文藝』, p.40

33) 상계서, p.32

34) 桐山龔(1985.04)「旅芸人」『文藝』, p.43

살고 있는 것이라 믿고 있다. “쌍둥이에는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고 쌍둥이가 극단에 들어와 있는 한 그 극단은 현세와 내세의 경계를 몇 번이고 뛰어넘어 여행을 계속해 갈 수 있다”³⁵⁾고 믿는 단장의 세계관은 기리야마의 세계관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혁명의 역사에 대한 기리야마의 열정은 제주도를 가공의 섬으로 변형시키고 있다. 이때 기리야마에게 있어 현실에 실재하는 제주도라는 섬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의 관심은 한국의 혁명의 역사와 그러한 혁명 속에서 사라져 간 자들에게 있다. 영원한 혁명의 가능성에 대한 기리야마의 문학적 추구는 풍장의 관습이라는 점에서 제주도와 ‘남도’를 동일 시하고 있고, 제주도를 죽은 자와 산 자가 공존하며, “영원한 삶이 약속된” 쌍둥이의 섬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종결되지 않은 혁명의 섬으로서 재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기리야마의 소설에서 오키나와와 제주도는 각각 일본과 한국의 섬이라는 구분이 필요 없는 공간이다. 다시 말해 오키나와와 한국은 기리야마의 문학적 세계에서는 동일한 기능을 가진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계간잡지 『민도(民濤)』가 기획한 좌담회에서 한국을 무대로 한 작품을 쓰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기리야마는 의식적으로 ‘제3세계의 상황’을 소설 속에 도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소설을 쓰는 목적은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저들(역자 주:일본인들)의 시점, 저들의 미의식, 저들의 세계”³⁶⁾을 전복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일본인의 사고와 가치체계에 균열을 넣기 위해서는 오키나와와 한반도의 상황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오키나와와 한반도, 즉 한국을 일본이라는 국가에 대해서는 동일한 ‘제3세계’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고판 『미장의 때』의 연보를 보면 기리야마는 대학을 입학한 1968년에서 졸업하게 되는 1972년 사이에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오키나와와 한국을 여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국 여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한 문장은 발견되지 않지만, 1988년 4월 14일자 「오키나와타임즈(沖縄タイムズ)」에 기고한 문장에는 오키나와를 여행한 시기가 1970년 여름방학으로 명기되어 있다. 시정권이 일본으로 복귀되기 전의 오키나와의 모습을 기리야마는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30일이라는 오키나와 여행의 시간은 내가 태어나고서 쭉 받아들여 온 일본의 감성이라고도 할 말만한 것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기에 충분했다. 아마토와는 다른 빛이, 다른 그림자가, 다른 바람이, 그리고 다른 시간의 흐름이 거기에는 있었다. 뜨거운 흙을 밟는 한걸음 한걸음이 나에게

35) 상계서, p.42

36) 小田実・金時鐘・桐山襲・中里喜昭・李恢成・李丞玉(1988)「在日文学と日本文学をめぐって」『民濤』4号, p.38

새로운 세계와의 만남이었다. (중략) 실제 1970년의 오키나와는 기묘한 장소였다. 거기에서는 ‘원초’와 ‘제3세계’와 ‘미국’과 ‘일본’이 기묘하게 뒤섞여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1972년 일본으로의 합병을 앞두고 오키나와가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속에서 흔들거리고 있었던 해였는지 모르겠다.³⁷⁾

기리아마는 오키나와에서 이국적인 색채와 함께 ‘원초’적인 모습과 ‘제3세계’적 성향을 발견하고 있다. 이러한 기리아마의 오키나와에 대한 시각이 전공투운동이 한창이던 시기의 ‘남도’언설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자.

‘남도’는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国男) 등의 영향으로 일본민속학에서 이미 하나의 특권적인 장소이다. 1960년대 말에는 메이지기의 남양(南洋)붐과는 달리 ‘남도’가 하나의 사상으로, 무라이 오사무(村井紀)의 표현을 빌리자면 ‘제2차 “남도 이데올로기”’³⁸⁾로서 작용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당시 학생운동의 사상적 지도자였던 요시모토 다카야키(吉本隆明)가 있었다.³⁹⁾ 요시모토는 “류큐·오키나와의 존재이유를 야요이(弥生)식 문화 성립 이전의 죠문(縄文)적, 혹은 그 이전의 고층(古層)을 모든 의미에서 보존”하고 있다는 것에서 찾고자 하고 있고, 이러한 논리가 입증되면 “야요이식 문화=도작농경사회=그 지배자로서의 천황(제)세력=그 지배하는 <국가>로서의 통일부족국가, 라고 하는 본토의 천황제국가의 우위성을 과시 하는데 도움이 되어 온 연쇄적인 등식을 토막낼 수 있다”⁴⁰⁾고 주장하고 있다. 즉, 요시모토에게 있어 류큐·오키나와는 본토중심의 역사, 천황제와 국가라는 존재를 상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제공해 주는 곳이었던 것이다. 이후 요시모토의 ‘남도’는 점차 일본적 상황을 뛰어넘어 세계인식의 보편적인 장으로 전개되어간다. 그러나 요시모토의 발상은 하나다 도시노리(花田俊典)의 지적처럼 “본토중심적으로 구상”⁴¹⁾된 자기중심적 시좌이다. 오키나와에 대해 “본토 중심의 국가 역사를 뒤집어엮을 정도의 기폭력과 전통”⁴²⁾을 내재한 곳으로 그 중요성을 역설한 요시모토의 사고에는 자기모순이 내포되어 있다. ‘남도’는 본토와의 위치관계에서 본토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만 성립하는 ‘남도’인 것이다.⁴³⁾

37) 桐山龔(1988.04.14)「《幻境》としてのオキナワ」『沖縄タイムス』

38) 村井紀(2004)『新版南島イデオロギーの発生—柳田国男と植民地主義』岩波書店、pp.4-8

39) 『共同幻想論』(河出書房新社、1968.12)에 수록된 「母制論」을 비롯하여 『情況』(河出書房新社、1970.11)에 수록된 「異族の論理」, 강연집 『敗北の構造』(弓立社、1972.12)에 수록된 「宗教としての天皇制」, 「南島論—家族・親族・国家の論理」, 「南島の継承祭儀について—<沖縄>と<日本>の根底を結ぶもの」 「世界民族-国家」空間と沖縄」 등이 이 시기에 발표된 요시모토의 ‘남도’론에 해당된다.

40) 吉本隆明(1970)「遺族の論理」『情況』河出書房新社、p.201

41) 花田俊典(2001)「沖縄はゴジラ—吉本隆明の南島論のスタンス」『日本文学』、p.54

42) 吉本隆明(1970)「遺族の論理」『情況』河出書房新社、p.202

43) 이것은 무라이도 지적하고 있는 바이다. 당시의 ‘남도’에 관한 언설을 ‘사상’ 혹은 ‘이데올로기’로 비판하

1960년대 말의 ‘남도’ 열풍 속에 기리야마가 ‘남도’ 관련 언설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기리야마의 오키나와에 대한 시각이 요시모토의 그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⁴⁴⁾ 민속학에서 일본민족의 기원과 국문학 발생의 장소로서 특권화된 ‘남도’가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야나기타 구니오의 사상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는 무라이는 남도론자들에게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으로서 “‘류큐처분’이라는 근대일본의 식민지주의를 무시”하는, 즉 “정복·지배”의 역사를 보지 않으려는 사고형태를 들고 있다.⁴⁵⁾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리야마의 소설은 오키나와를 신화적이고 원초적인 아름다움과 ‘치유’의 힘을 내재한 장소로 그리고 있었다. 그 속에서 발견되는 기리야마의 민속학적 관심(가령, 소설에도 나타난 노로 계승 제의 등)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남도’가 천황제와 국기를 상대화하기 위한 시점으로써 제공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리야마의 소설은 무엇보다 일본제국의 식민지배의 역사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소설 속에서 오키나와는 일본과는 별개의 독립국가로 존재하며, 근대일본에 의해 식민지화된 공간으로 그려져 있다. 이것은 적어도 무라이가 ‘남도이데올로기’로서 비판하는 남도론자들의 사고 형태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아열대의 눈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기리야마는 오키나와를 한국과 동일지평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피지배와 피억압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오키나와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이라는 국가에 대해서는 ‘제3세계’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 있는 무라이는, 오키나와를 ‘남도’라 부르는 것은 일본에서 보았을 때만 성립하는 것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남도론자들은 망각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하여 야나기타 구니오가 ‘조선’문제를 ‘남도’로 은폐했던 것처럼 실제의 오키나와와는 다른 ‘원(原)일본’으로 발견된 ‘남도’는 “동질적인 ‘일본’이라는 작위된 ‘정치’적인 신화(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설명한다. (村井紀(2004.5) 『新版 南島イデオロギーの発生—柳田国男と植民地主義』岩波書店, p.10)

- 44) 기리야마의 요시모토에 대한 직접 언급한 문장 등은 발견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 구로코 가즈오(黒古一夫)와의 인터뷰에서 ‘요시모토·하니야(埴谷)논쟁’(일명 ‘꿈데가르송논쟁’)에 대해 언급한 부분(文学時標社編(1991.03) 『インタビュー集 異議あり! 現代文学』文学時標社, pp.136~139)을 보면 요시모토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요시모토가 패션잡지 『an an』(1984년9월21일호)에 ‘현대사상계를 리드하는 요시모토 다카야키의 패션’이란 제목으로 가와쿠보 레이(川久保玲)의 패션브랜드 꿈데가르송의 재킷과 셔츠 등을 착용하고 패션모델로 등장한 사실 자체에 대해 기리야마는 논쟁자인 하니야 유타카(埴谷雄高) 못지않은 반감을 표현하고 있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된 1991년 현재 자본주의의 압도적인 승리 앞에 학생운동의 정신적 지주였던 요시모토가 보인 “보통의 서민 여자아이가 『an an』을 보고 눈을 반짝이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일본의 고도성장은 좋은 일이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 인터뷰에서 기리야마는 요시모토를 비롯한 고도소비사회(“상품과 화폐의 난무”)를 맞이한 일본사회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이지만, 이것은 한편으로는 1980년대적 상황 하에서는 적어도 요시모토 사상의 추종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 45) 村井紀(2004) 『新版 南島イデオロギーの発生—柳田国男と植民地主義』岩波書店, p.6

5. 나오며

본고에서는 혁명과 투쟁, 반국가와 반체제라는 테마를 관철해 온 기리야마의 작품세계에서 한국과 오кина와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기리야마문학의 주된 소재는 전공투운동이다. 그의 소설은 실패와 좌절로서 끝난 혁명과 투쟁이 그 어떤 형태의 계승과 전달의 가능성 없이 역사의 어둠 속에 묻혀버린 현재적 상황에 대한 르상티망(ressentiment)으로 가득차 있다. 그러나 기리야마는 그러한 어둠을 응시하려는 자세를 멈추지 않았다. 유고작이 될 것을 의식하면서 병실에서 탈고한 「미장의 때」(「文藝」1992.夏)는 그가 일생동안 추구해 온 문학적 테마로부터는 일정 거리를 두고 있다. 암으로 사망한 40대 중반의 남자의 시신이 불태워지고 있는 과정을 「화장 담당자(Allegro)」, 「여자(Adagio)」, 「아이(Andantino—Prest non assai)」, 「남자(Con moto)」 4개의 장으로 나누어 각각의 시점에서 서술되는 단편으로, 소설 속에서 여자가 남자의 유품으로 관 속에 함께 넣어 주는 브람스(Brahms)의 <클라리넷 5중주곡 b단조>가 소설의 구성 형식을 이루고 있다. 기리야마가 다가올 죽음을 예견하면서 브람스의 곡을 마치 자신을 위한 레퀴엠(requiem)과도 같이 소설의 저변에 흐르게 하고 있는 이 소설에는 실제 마지막 장에서 타버린 육체를 빠져나와 상공에 날아오른 남자의 영혼이 블라흐(Leopold Wlach)가 연주하는 클라리넷 소리를 듣는 장면이 있다. 여기에는 슬픔과 회한과 공포가 아닌 죽음을 조용히 관망하는 서정성마저 묻어나오고 있다.

이와 같이 「미장의 때」는 기리야마가 추구해 온 세계와는 거리를 두고 있으나 그가 일관되게 유지해 온 문학적 자세를 확인할 수 있다. 승자를 중심으로 한 역사기술에 대한 불신에서 기리야마는 혁명과 투쟁의 현장에서 죽어간 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전하지 못한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자세를 작품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태도가 「미장의 때」에서는 이미 죽은 남자의 영혼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소설 속에는 화장담당자가 가마 속의 시신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내부 창을 열고 들여다보는 장면이 있다. 그는 가마 안에서 풍기는 불쾌한 냄새에 암으로 죽은 사람은 악취가 심하고 태우는데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 선배 영감의 말을 떠올린다. 그리고 그는 죽은 선배 영감과 함께 일했던 시절의 기억을 회상하는데 이때 기리야마는 화장되고 있는 남자의 “두 개의 귀”⁴⁶⁾만이 살아남아 이들의 대화 내용을 엿듣고 있는 것처럼 묘사한다. 여기에서 기리야마는 “두 개의 귀”로 상징되고 있는 것처럼 죽은 자의 영혼을 통해서까지 어둠의 소리, 죽은 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고 있다.

46) 桐山龔(1999.11)「未葬の時」講談社, p.18

史教科書をつくる会)의 활동으로 대표되듯이, 역사교육 현장에서 집단적인 기억의 말살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기리야마가 1980년대에 그의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비판하고 저항했던 현상들이다. 이처럼 과거사 해석에 있어 기리야마의 일관된 자세는 역사의 어둠 속에 묻힌 자들을 대신해 그들의 기억과 목소리를 전승하려는 태도였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과 오키나와에 대한 시선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배·정복’의 역사를 고발하는 반천황·반국가·반체제적인 불복종의 자세였다. 전형적인 전공투세대로서 전공투 운동에 대한 기억과 전승의 의지를 표현해 온 기리야마의 소설 속에 나타나는 한국과 오키나와에 대한 시각은, 1980년대적 상황에서 그의 사후에 전개될 네오내셔널리즘적 경향에 대한 예지와 시대를 앞선 비판이었다고 할 수 있다.

【參考文獻】

- 소명선(2008)「기리야마 가사네(桐山襲)론—마이너리티문학과 한반도에 대한 시선」『日語日文学』37집, p.213
 _____(2008)「기리야마 가사네(桐山襲)의 『아열대의 눈물(亜熱帯の涙)』론—南島神話의 1980년대적 의미」『日本語文学』38집
 小田実·金時鐘·桐山襲·中里喜昭·李恢成·李丞玉(1988)「在日文学と日本文学をめぐって」『民講』4号
 川村二郎·三木卓·柄谷行人(1989)「第59回創作合評」『群像』44卷3號
 桐山襲(1999)『未葬の時』講談社
 _____(1989)「都市叙景断章」『文藝』春
 _____(1988)「《幻境》としてのオキナワ」(『沖縄タイムス』1988.04.14)
 _____(1987)「南島の死者と生者」『季刊クライシス』31号
 _____(1987)「亜熱帯の涙」『文藝』春
 _____(1986)「聖なる夜聖なる穴」『文藝』春
 _____(1985)「旅芸人」『文藝』24卷4号
 _____(1983)「ノルチザン伝説」『文藝』22卷10号
 黒古一夫(1985)『全共闘文学論 祝祭と修羅』彩流社
 高井有一·坂上弘·三浦雅士(1987)「第135回創作合評」『群像』42卷3号
 花田俊典(2001)「沖縄はゴジラカー—吉本隆明の南島論のスタンス」『日本文学』50卷1号
 村井紀(2004)『新版 南島イデオロギーの発生—柳田国男と植民地主義』岩波書店
 吉本隆明(1970)『情況』河出書房新社

논문투고일 : 2013년 09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3년 09월 20일
 1차 수정일 : 2013년 10월 09일
 2차 수정일 : 2013년 10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3년 10월 21일

 <要旨>

기리야마 가사네(桐山麿)론

- 기리야마문학 속의 한국과 오키나와 -

본 논문은 전형적인 전공투세대 작가 기리야마 가사네(桐山麿)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1980년대에 ‘빨치산전설’ 사건으로 기억되는 기리야마는 8년 남짓한 작가생활 동안 총 17편의 소설을 발표했다.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두의 전공투 체험을 1980년대적 상황에서 서술하는 것이 대부분인 기리야마의 작품은 혁명과 투쟁이라는 주제로 일관된 것이었다. 본 논문은 전공투운동 현장의 한가운데 있었던 기리야마의 한국과 오키나와에 대한 시각에 초점을 맞춘다. 그가 남긴 작품 중 한국과 오키나와에 대한 픽션화 과정에 주목하여 각각 어떠한 양태로 그려지고 있는지, 기리야마에게 있어 한국과 오키나와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한국과 오키나와를 표상하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당시 연설의 중심에 있었던 ‘남도’론과의 관련 양상을 시야에 넣어 검토하였다. 기리야마의 제국주의 역사에 대한 태도는 일본정부가 부정하고 은폐하려는 역사적 사실을 부각시키고,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함께 《지원한 창부》의식으로 표출되고 있었다. 오키나와 표상에 있어서는 당시의 ‘남도’연설과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 그러나 기리야마의 소설 속에서 한국과 오키나와는 일본제국의 식민지 지배 역사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지평에서 다루어지고 있었고, 오키나와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이라는 국가에 대해서는 ‘제3세계’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study on Kiriyaama Kasane

- Korea and Okinawa in Kiriyaama's Literature -

This paper studies Kiriyaama Kasane who is a typical Zenkyoto[All-Campus Joint Struggle Committee] generation writer. Kiriyaama known as *Partisan legend* affair in the 1980's announced the novel on 17 volumes during the writer life of the remainder eight years. The structure that most of these novels talks about Zenkyoto experience from the end of the 1960's to the beginning of the 1970's in the situation of the 1980's is taken. And Kiriyaama carries through his literature theme to a thing as a revolution and the struggle in this case. In this paper, I focused on the perspective to Korea and Okinawa of Kiriyaama whom there was in the middle of All-Campus Joint Struggle movement. How are Korea and Okinawa drawn in the novels of Kiriyaama? What kind of meanings have Korea and Okinawa to Kiriyaama? To answer to these questions, I paid intensive attention and try to focus on the fictionalized process of Korea and Okinawa by Kiriyaama's novels. With a critical stance against the history of Japanese empire, he denying Japanese government attitude toward the Imperial history, trying to express his interpretations of the historical facts with the terms of «whore volunteered» in his novels. On the way of explanation of my thesis in this paper, I accept the idea of 'Nanto[southern island]' positive which is the major explanation in the field of vision in those days, and I try to analyze the works which represent the images of Korea and Okinawa. In Kiriyaama's representation of Okinawa, I can especially find out the similar structure with the idea of 'Nanto'. But in novels of Kiriyaama, I can confirm two things. The first, Korea and Okinawa has similarly treated because they has the same historical background which underlies the colonial rule of Japanese empire. Secondly, Okinawa like Korea is granted as 'The 3rd World' for the nation of Japan.